



젊은 층의 대북·통일 인식

2018-13

김지윤 선임연구위원

강충구 선임연구원, 김길동 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2018.04.20

들어가며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남북 단일팀 성사여부였다. 남북 단일팀은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자주 논의됐었다. 이는 단일팀이 스포츠의 특수성에 기대어 민족 동질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적합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도 단일팀 구성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보고,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단일팀 구성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달랐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2018년 1월 SBS와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1.2%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한다고 했으나, 72.2%는 무리해서 단일팀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¹ 이와 관련된 후속 언론 보도는 북한에 대한 젊은 층의 적대감에 초점을 맞췄다. 일부에서는 단일팀 논란으로 젊은 층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탈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불거진 남북 단일팀 논란은 젊은 층의 대북, 통일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이슈브리프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북한,

대북 경제지원,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고, 20 대의 대북·통일 인식 전반을 분석했다. 특히 20 대가 전통적 안보 보수층인 60 세 이상과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짚어봤다.

최근 젊은 층 특히 20 대는 안보 보수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 대는 안보 이슈에서 고령층(60 세 이상)만큼 혹은 그 보다 더 보수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7 년 조사에서도 20 대는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했고, 대북 경제지원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전통적 안보 보수층인 60 세 이상의 대북 인식과 유사한 면모였다. 하지만, 20 대와 60 세 이상은 대북·통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60 세 이상이 북한과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며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반면, 20 대는 북한을 남 또는 적으로 봤다. 또 20 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덜 했고, 이를 시급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 통일 기대효과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꼽은 60 세 이상과 달리, 20 대는 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간 이질감을 해소하는 노력과 더불어, 연령대별 인식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대북·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위협 인식과 대북 경제지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대북, 통일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전쟁 가능성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를 분석했다. 2011~17 년 기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응답 비율)을 비교했다.

해당 기간 북한의 위협이 상존했음에도, 전체적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본 비율은 2012 년 58.8%, 2016 년 60.6%를 제외하면 모두 절반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웠지만, 연령대별로는 일정한 패턴이 발견됐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 대와 60 세 이상은 남북간 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봤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였다.

실제로 20 대는 2017 년(57.4%)을 제외하면, 2011~16 년까지 전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연령대였다. 20 대는 최소 55.5%(2015 년), 최고 66.2%(2013 년, 2016 년)가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60 세 이상은 2011~16 년 기간 전쟁 가능성을 두 번째로 높게 봤고, 2017 년(64.4%)에는 전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연령대였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0~60% 초반을 기록했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 연령대별 한반도 전쟁 가능성 평가² (단위: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체	49.8	58.8	47.5	49.0	46.4	60.6	52.5
20 대	57.4	64.5	66.2	55.6	55.5	66.2	57.4
30 대	46.0	59.9	62.1	48.4	45.5	62.1	49.3
40 대	42.7	52.1	53.5	42.8	38.0	53.5	41.5
50 대	48.5	58.0	57.2	47.1	44.8	57.2	47.7
60 세 이상	55.8	60.6	64.6	52.0	49.4	64.6	64.4

다음으로 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의 핵 개발에만 도움이 되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표 2]를 보면, 한국인 중 대다수는 대북 경제지원에 부정적이었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대북 경제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최소 68.5%(2012 년), 최고 78%(2017 년)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에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대북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7 년 22%로 가장 낮았고, 최고치를 기록한 2012 년에도 31.5%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긴장이 가장 고조됐던 2017 년 한반도 정세, 2017 년까지 경색국면에 있었던 남북관계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 이슈에 보수성향을 드러내 온 20 대와 60 세 이상은 대북 경제지원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는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의 모든 조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안보 보수층으로 분류되는 60 세 이상뿐 아니라, 20 대도 약 70~80%가 대북 경제지원에 회의적이었다. 대체로 전 연령대에서 부정적 의견(60~70%대)이 우세했지만, 그 경향은 20 대와 60 세 이상에서 더욱 분명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조사를 시작한 2011 년 이후,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20 대의 태도가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태도변화 없이 대북 경제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20 대는 2011 년 78.4%에서 2017 년 88.5%로 10.1%p 증가했다. 다음으로 상승폭이 큰 연령대는 60 세 이상(9.4%p)이었다. 전통적 보수층인 60 세 이상과 새롭게 안보 보수층으로 부상한 20 대가 대북 경제지원에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그 보수성은 더욱 강해진 것이다. 특히 20 대는 30 대와 10%p 이상 차이가 났고, 안보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여겨지는 40 대와는 20%p 가량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표 2. 연령대별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³ (단위: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체	73.4	68.5	75.2	68.7	72.2	75.3	78.0
20 대	78.4	76.1	84.3	78.2	81.0	84.4	88.5
30 대	73.8	64.5	71.5	68.1	71.3	70.6	73.9
40 대	69.7	58.5	68.2	56.3	66.0	69.9	66.9
50 대	70.3	68.3	74.0	68.0	70.4	70.2	75.5
60 세 이상	75.3	76.7	79.4	74.8	73.5	81.0	84.7

대북·통일인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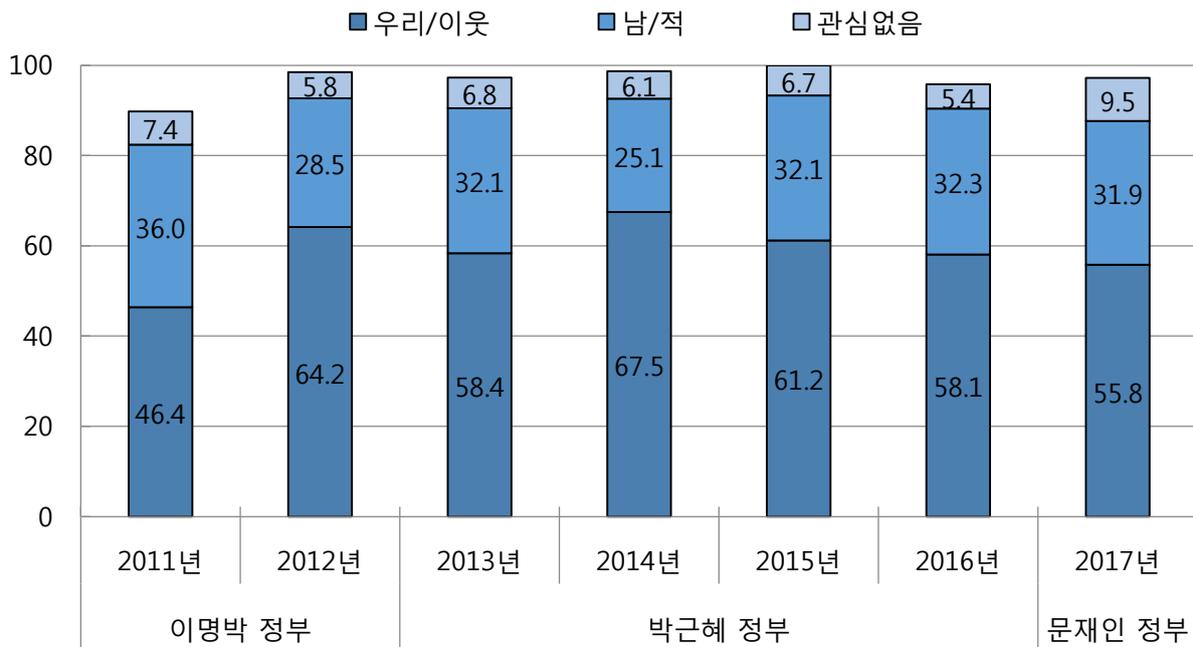
앞서 살펴봤듯이 안보 이슈에서 보수 성향을 드러내온 20 대와 60 세 이상은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했고, 대북 경제지원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 두 연령대는 평소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1) 대북 인식: 우호 vs. 적대

2010년 이후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표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0년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금강산 관광 중단, 5.24 제재 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에 있었지만,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우호적 시각이 우세했다. 반대로 북한을 남 또는 적으로 본 적대적 시각은 2012년부터 30% 내외였다([그림 1] 참조). 적대적 시각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다음해인 2011년 36%까지 늘었는데,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

2016~17년 사이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가 2017년 9.5%로 두 자릿수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2016년 5.4%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가 됐다. 1년 사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난 것은 2017년 북한의 핵 개발과 무력도발 수위가 과거보다 더 높아지면서, 여기에 피로감을 느낀 응답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1. 한국인의 대북인식: 우호 vs. 적대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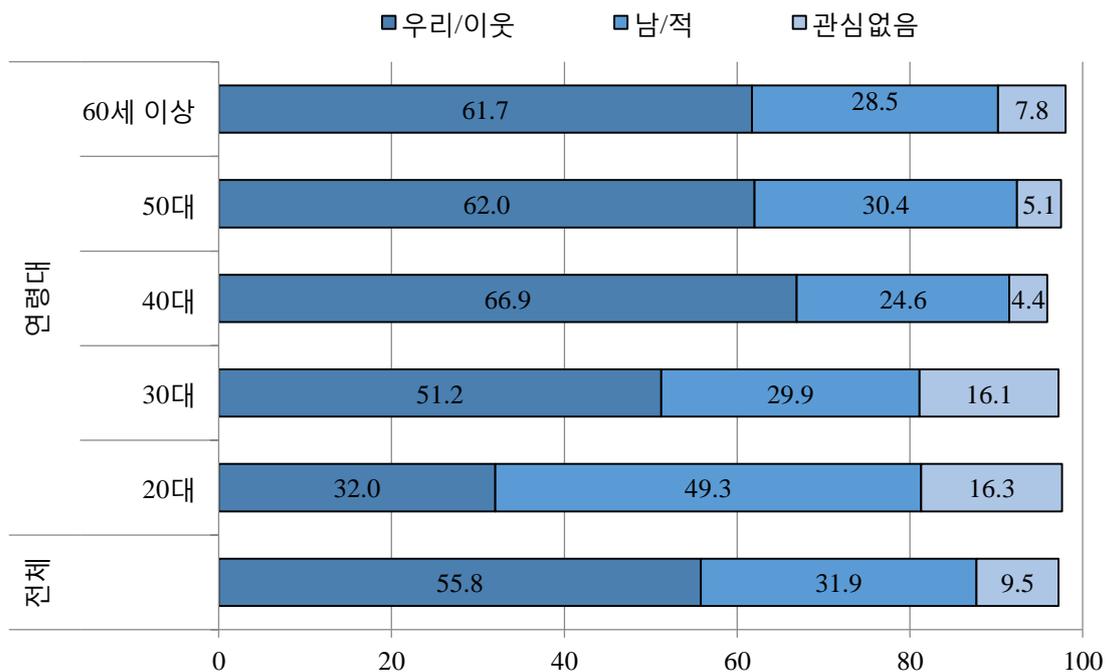


추가로 연령대별 대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17 년 자료를 분석했다(그림 2 참조). 북한에 가장 적대적인 연령층은 20 대였다. 20 대는 북한을 남 또는 적으로 본다고 한 비율이 49.3%로 유일하게 절반에 가까웠다. 다른 연령대는 30% 내외에 그쳤다. 반면, 북한에 가장 우호적인 연령층은 40 대였다. 40 대는 66.9%가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다고 답했다(50 대: 62%, 60 세 이상: 61.7%).

북한을 적대적으로 본 시각은 20 대 중에서도 여성(32%) 보다 남성(68%)에서 더 뚜렷했다.⁵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20 대 남성에게는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실질적 위협이 됐을 것이다. 또 3 대 세습으로 비교적 젊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이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60 세 이상은 61.7%가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인식했다. 같은 안보 보수라고 해도 고령층은 대체로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민족 동질감을 공유했다. 20 대와 달리, 이들은 북한을 우리나라 이웃으로 여기며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림 2. 2017 년 연령대별 대북인식⁶ (단위: %)



(2) 통일에 대한 태도

2010 년 이후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대체로 증가했다. 2010 년 52.6%에서 2011 년 70%로 늘었고, 2012 년 이후에는 80%대를 유지했다(2012 년: 83.9%, 81.5%→82.6%→85.5%, 2016 년: 83.5%). 2017 년(82.3%)까지 통일 자체에 대한 전반적 관심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별로 달랐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일에 무관심했다. 시기에 관계 없이 20 대, 30 대에서 통일 무관심층이 많았다. 2017 년을 제외하면 2011~2016 년 기간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0 대에서 30% 내외로 가장 높았다(최저: 22.9%, 최고: 35.6%). 반면, 60 세 이상은 2011 년 31.4%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6 년간(2012~17 년) 통일 무관심층이 10%내외로 매우 소수였다.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며, 대북 경제지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20 대와 안보 보수의 성향을 공유했지만 통일 문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표 3. 연령대별 통일에 대한 무관심⁷ (단위: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체	30.0	16.1	18.5	17.4	14.5	16.5	17.8
20 대	35.6	22.9	27.6	28.2	23.6	25.9	23.0
30 대	33.4	18.2	24.2	24.2	19.3	24.5	31.3
40 대	22.8	16.0	12.8	18.3	14.0	13.6	10.1
50 대	27.8	12.8	14.7	10.1	11.1	11.0	12.7
60 세 이상	31.4	11.1	14.6	8.3	7.3	10.5	14.9

통일 시점에 대한 의견도 살펴봤다. 전체적으로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가 절반(54.6%)을 넘었고,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22.3%),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상황에 따라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분석에 따르면, 20 대와 60 세 이상은 통일의 시급성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예를 들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0 대에서 12%로 가장 높았다(30 대: 10.4%). 반면, 여기에 동의한 60 세 이상은 6.4%로 절반 수준이었다. 반대로 60 세 이상에서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2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40 대: 19%, 50 대: 18.1%). 20 대는 7.2%로 60 대 이상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할 민족 과제로 본 시각은 20 대 보다 60 세 이상에서 훨씬 강했다.

표 4. 2017 년 연령대별 통일 시점에 대한 의견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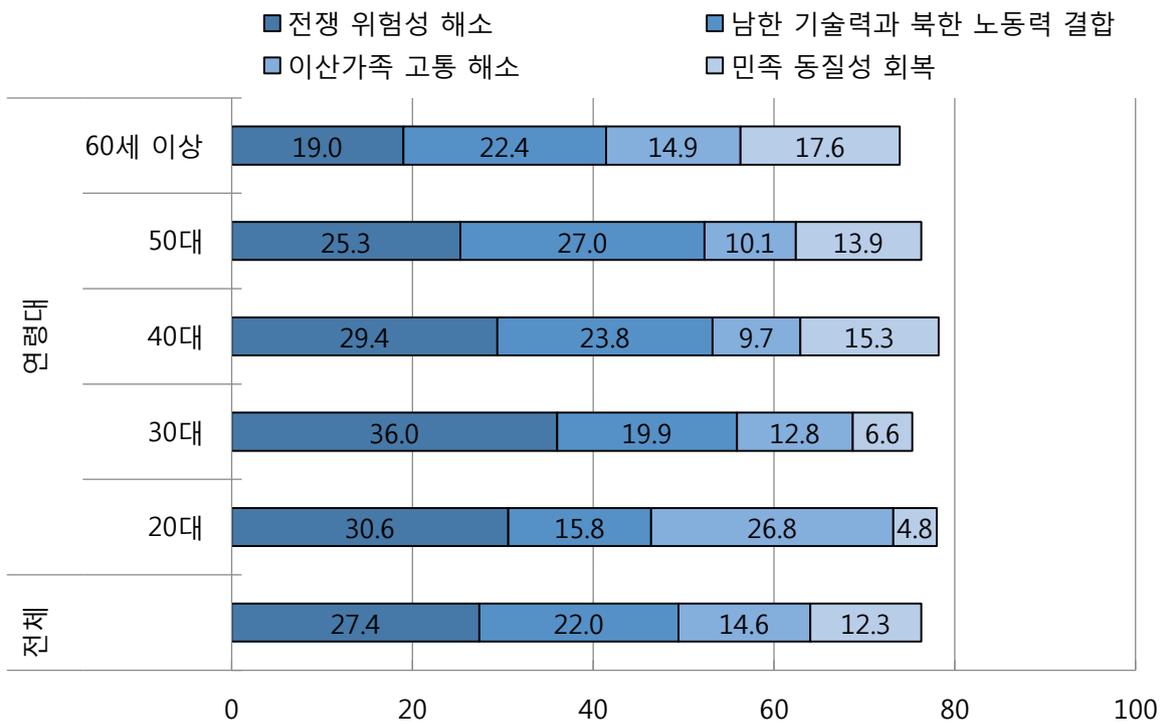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전체	16.2	54.6	22.3	7.0
20 대	7.2	56.9	23.9	12.0
30 대	12.8	55.5	21.3	10.4
40 대	19.0	62.1	15.7	3.2
50 대	18.1	55.7	21.9	4.2
60 세 이상	21.0	45.1	27.5	6.4

통일에 대한 접근법 차이는 통일 기대효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2017 년 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체적으로 전쟁 위험성 해소 27.4%, 남한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 결합 22%, 이산가족 고통해소 14.6%, 민족 동질성 회복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 세 이상이 경제 효과와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반면, 젊은 층에서는 전쟁 위험성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기대하는 비율은 60 세 이상 17.6%, 40 대 15.3%, 50 대 13.9%의 순으로 높았고, 20 대와 30 대는 각각 4.8%, 6.6%에 그쳤다.

젊은 층은 전쟁 위험성 해소를 1 순위 기대 효과로 꼽았다. 30 대 36%, 20 대 30.6%, 40 대 29.4%의 순으로 높았고(50 대: 25.3%), 60 세 이상은 19%만 이를 통일 기대효과로 꼽았다.

전쟁을 직접 겪은 응답자가 포함된 노년층보다 젊은 층이 전쟁 위험성 해소를 1 순위 통일 기대효과로 꼽은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젊은 층에게는 통일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거나 북한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란 것을 의미한다. 젊은 층은 통일이 되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인 것으로 보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그림 3. 2017 년 연령대별 통일 기대효과⁹ (단위: %)



나가며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진 남북 단일팀 논란은 젊은 층의 대북, 통일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그 동안 여론조사 보고서를 통해 20 대의 안보 보수화를 수 차례 보고해 왔다. 실제로 20 대는 안보 이슈에서 고령층(60 세 이상)만큼

혹은 그 보다 더 보수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¹⁰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에도 20 대와 60 세 이상은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했고, 대북 경제지원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안보 보수성은 내용면에서 달랐다. 60 세 이상은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안보 보수가 됐지만, 북한과는 민족 정체성을 공유했다. 이와 달리, 20 대는 북한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남 또는 적으로 인식했다. 20 대에는 비교적 많은 통일 무관심층이 존재했고, 통일을 시급한 문제로 보지 않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또 이들은 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기대효과로 꼽을 만큼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60 세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많고, 통일의 효과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기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젊은 층이 통일 지상주의 교육을 받지 않았고, 분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할만한 경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는 분단 이후, 급속한 변화를 겪은 한국 사회 내 젊은 층에게 민족 정체성, 동질성 회복 중심의 통일 접근법을 강요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 통일 접근법은 젊은 층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 지상주의나 민족 정체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전쟁·무력도발에 대한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통일 문제를 풀어나갈 젊은 층에게 적합한 통일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을 국가·민족 차원이 아닌, 현실적 차원에서 풀어나야 한다. 즉 통일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적 접근 보다는 통일이 되면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실리적 접근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남북간 이질감 해소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오랜 분단으로 남북간 이질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사회·문화적 통합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점에서 단기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교류를 지속해야 한다. 이제는 민족 동질성을 앞세우기 보다 남북간 이질감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

아산 연례조사 조사개요

2010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2,0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 년 8 월 16 일~9 월 17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2,0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 년 8 월 26 일~10 월 4 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 년 9 월 24 일~11 월 1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 년 9 월 4 일~9 월 27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4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4 년 9 월 1 일~9 월 17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5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5 년 9 월 2 일~9 월 30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6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5 년 9 월 9 일~10 월 14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7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2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전화/FAX 조사
조사기간: 2017 년 10 월 19 일~11 월 14 일
실사기관: 칸타 퍼블릭

-
- ¹ 출처: 김현유. 2018. "20·30 대 80% 이상이 '단일팀'에 반대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8 년 1 월 18 일자. http://www.huffingtonpost.kr/2018/01/18/story_n_19028432.html
- ²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1~2017 년).
- ³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1~2017 년). [표 2]에 제시된 2011~17 년 연령대는 서로 다른 코호트(cohort, 동일 출생년도 인구집단)이다. 예를 들면, 2011 년 만 24~29 세였던 응답자는 6 년 후인 2017 년에는 30 대가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1~17 년 기간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20 대의 강경한 태도가 지속, 강화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 ⁴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1~2017 년). 구체적인 조사개요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평소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을 '우리'와 '이웃'은 우호적, '남'과 '적'은 적대적으로 구분했다.
- ⁵ 대북 인식을 연령대와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20~30 대 남녀 성별간 분석결과에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 ⁶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7 년).
- ⁷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1~2017 년). 통일 관심도 문항에 대한 응답은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 의해 관심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 ⁸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조사기간: 2017 년).
- ⁹ 문항 응답지 중 국제 외교력 신장(6.9%), 대한민국 영토 확장(6.8%)은 그 비율이 10%미만이였다.
- ¹⁰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출간한 여론조사 보고서("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7.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급변하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등 다수)를 참고하기 바란다.